

國樂器와 洋樂器의 相關關係에 대한 一研究

張 昌 煥

(本會 總務・서울教大副教授)

<目 次>

I. 序 論

A. 研究의 目的

B. 研究의 意義

II. 研究의 問題와 方法

III. 鑷樂 名稱의 定義와 性能

A. 鑷樂 名稱의 定義

B. 國樂器 피리의 名稱과 構造

C. 플라스틱 피리의 名稱과 構造

D. 우리나라 플라스틱 피리 製品의 分析

IV. 結論 및 提言

I. 序 論

教育의 發展과 더불어 學校에서의 音樂教育은 教育音樂으로서 크게 發展되어 왔으며, 또 目標과 教育內容의 充實을 期하게 되었다. 變遷을 거듭해 온 오늘의 初, 中高校, 音樂教育課程의 一般目標에서 音樂教育은, 「音樂의 體驗을 통하여 音樂性和 創造性を 계발하고 情緒를 豊富히 하여 調和된 人格을 形成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國民으로서의 教養을 높인다」는 確固한 目標을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指導內容도 學習內容과 方法의 충실을 위하여 歌唱, 器樂, 創作, 鑑賞의 네 領域으로 나누어, 보다 具體적인 細目標을 밝혀 주고 있다. 이에 오늘의 音樂教育은 從來의 唱歌中心教育이 止揚되고 表現學習(가창, 기악) 創作學習, 鑑賞學習을 위한 여러 活動을 有機的으로 指導하는 教育으로 바뀌게 되었다. 音樂科의 教育課程은 各 領域別로 音樂학습內容의 範圍와 학년별 系列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器樂領域의 內容을 좀 더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國民 학교와 中 학교에서의 必須樂器는 피아노(오르간), 실로폰(철금) 및 피리(國民 학교 교육과정 음악과 지도상의 유의점 (8)항, 中학교 유의점 (9)항)로 정하고 있다.¹⁾ 우리나라 音樂教育의 教授—學習方法은 크게 발전하였다고 이미 말했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소위 西洋音樂의 內容이다, 國樂內容이다, 로 적잖이 論難이 되고 있는데 器樂의 必須樂器인 피리가 바로 문제의 論難의 대상 중 하나이다.

A. 研究의 目的

한국 국악 학회 주최로 去年 國樂學會 세미나(1973. 8. 6~10: 강능)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1) 문교부령 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서울:교육도서 주식회사, 1973) p.190

때 교육과정에서 필수 악기로 지정된 악기 피리는 國樂器인가,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인 레코더(recorder)인가, 만일 레코더라면 國樂器名인 피리란 名稱을 쓸 수 있을 것인가의 논란이 있었으며, 문교부 편수자료 제 7집 審議會議(1976. 9. 16: 학술원)에서는 편수자료의 악기명을 討議할 때, 피리는 역시 國樂器인가, 레코더인가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인가, 또 교육과정의 제시도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인가 등의 討論이 있었으며, 市內 初·中高校 音樂教師들을 대상으로 質問紙를 수집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표-1〉 교육과정의 필수 악기 피리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976. 12. 조사

교사	악기	국 악 기	플라스틱피리(레코더)	국악기와 레코더
국 민 학 교		5%	72.5%	22.5%
중 · 고 등 학 교		5%	80 %	15 %

〈표-1〉과 같이 대부분이 필수악기 피리란 플라스틱 레코더라고 하였지만 국악기라고 한 응답자도 中學校는 20%나 되고, 국민학교는 27%나 되어 교육과정 해석의 문제점과 음악교육의 教授學習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理由에서 本 研究는 교육과정의 필수 악기 피리는 어느것인가를 확실히 할 것과, 피리라는 악기의 名稱은 國樂器에만 쓰이는 것인가, 레코더는 피리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인가를 文獻을 調査하여 名稱의 由來와 악기의 構造를 알아보고, 현재 대부분의 국민 학교에서 使用하고 있는 피리(레코더)의 性能을 調査하여 音樂教育用으로서의 適否를 檢討하여 일선교사들의 피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피리 製作者들의 覺醒을 促求하고자 함에 目的을 둔다.

B. 研究의 意義

위의 目的을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 해석의 正常化를 일선교사들에게 갖게 하며, 불필요한 소비와 논란을 지양하고 음악학습의 정상적인 運營을 기하고, 市中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리의 精密製品을 生産하게 함으로써 음악교육의 基礎인 바른 音程感을 어린이들에게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로서 여러 가지 音樂의 表現機能의 習得에 앞서, 敏感한 感受性을 가진 학생들에게 不良樂器로 인한 그릇된 音程感과, 合奏에 의한 非正常的인 和音感을 갖게 하는 誤謬로부터 어린이들을 保護하며, 興味 있는 기악 합주를 통한 學習으로 活氣있는 教授—學習 運營에 寄與하리라고 본다.

II. 研究의 問題와 方法

A. 研究의 問題

피리라는 악기는 교육 과정에서 필수 악기로 정하고 있고, 국정 교과서인 국민학교 음악과 교

과서 제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의 內容에서 피리에 관한 것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1) 피리를 국악기로 소개한 내용은 제 3 학년 교과서 p. 43에 “연주 사진과 피리”로 표시되었음

(2) 피리를 레코더로 나타낸 내용은

제 3 학년 p. 27……피리 演奏圖와 악보

제 4 학년 p. 22……피리와 奏法

“ p. 23……피리 2중주 악보

“ p. 53……가락악기 合奏樂譜

“ p. 64……피리 2중주 악보

제 5 학년 p. 18……피리 奏法

“ p. 23……피리 2중주

“ p. 61……피리 2중주

제 6 학년 p. 25……마침꼴과 2중주곡을 피리로 붙어 보자

“ p. 29……피리 2중주

“ p. 31……피리 실로폰 합주

“ p. 34……피리 독주

“ p. 37……피리 2중주

“ p. 42……기악합주—피리 I, II

“ p. 58……피리합주—의 내용

으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 국민 학교와 중 학교의 음악 授業에서 피리악기 指導는 플라스틱 제품인 여러 가지 피리(칼울프, 쉼멜, 백조, 옥피리, 메아리, 셀마, 엔젤 등)의 레코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악기들의 性能에 대한 市內 初·中 高校音樂教師들을 상대로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2〉 플라스틱 피리(레코더)의 性能 調査

1976. 12. 3

교사 내용	국민 학교		중·고 등 학교		총 합	
	바 르 다	틀 린 다	바 르 다	틀 린 다	바 르 다	틀 린 다
음 계	50%	50%	50%	50%	50%	50%
음 정	35 "	65 "	40 "	60 "	38 "	62 "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본 研究는 다음을 中心으로 問題를 제시하고 解決해 보고자 한다.

1. 여러 가지 辭典에 나타난 피리에 대한 定義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2. 國樂器 피리의 名稱과 構造 및 性能 調査
3. 피리(레코더)의 名稱과 構造 및 性能 調査
4. 현재 우리 나라에서 市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피리의 性能은 敎育用 악기로서 알맞게

製造되고 있는가 및 效能은 어떠한가를 調査 研究하고자 한다.

B. 研究方法

피리에 대한 定義와 國樂器 피리, 레코더 피리 등의 名稱과 構造 및 性能에 대해 文獻을 調査 比較 檢討하며 여러가지 플라스틱 피리는 市販되는 製品을 蒐集하여 그 악기들의 商標別로 檢討하여 構造와 性能을 確認하며 국민 학교와 中·高校 教師들을 대상으로 한 質問紙法을 活用하여 是正되어야 할 要素들을 가려내어 關係當局에 建議 및 是正하게 하고자 한다.

Ⅲ. 樂器(簫簫) 名稱의 定義와 性能

A. 簫簫 名稱의 定義

피리라는 樂器名은 현행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또 國樂에서나 일반 常用語에서 입으로 부는 管樂器를 通常의으로 일컬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악기의 構造도 다르고 性能도 다르므로 모든 악기에,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을 音樂辭典을 비롯하여 여러 辭典과 事典을 통하여 알아본 바 信進出版의 音樂大事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

「피리(笛) 관악기에 관한 넓은 뜻·좁은 뜻의 일반적 명칭. 특히 가로피리(橫笛)종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플루트를 특히 피리라고 별칭하는 수도 많으며, 같은 리드가 없는 관악기로서 레코더의 종류도 일반적으로 세로피리(縱笛)라 하고 단지 피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정의했고, 같은 音樂大事典이지만 국민 음악 연구 회편의 내용은 피리를 필물(簫簫)로서 국악기만을 소개하고 있다.³⁾ 금수현 엮음의 표준 음악사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피리는 簫簫(필물)이라 쓰고 “피리”로 읽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

「피리(簫簫) 국악의 목관악기, 황죽(黃竹)으로 대통을 만들고, 역시 대로 겹혀를 만들어 꽂아서 불……국악에 쓰이는 것으로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한글 辭典 등의 사전을 통해 본 피리의 名稱에 관한 解釋은 다음과 같다. 한글 학회의 새 한글 사전⁵⁾과 큰사전⁶⁾에서는 「피리(악) ① 구멍 여덟 개가 있고 피리 혀를 꽂아서 불게 된 관악기의 한 가지 ②속이 빈 대의 구멍을 뚫고 숨을 내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의 통틀어 일컬음」이라고 정의하여 피리는 國樂器의 特定된 악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불어서 소리내는 악기의 通稱임을 밝히고 있다.

2) 信進出版社 編纂委員會 “音樂大事典”(서울: 信進出版社, 1972) p. 1379

3) 李康濂 “音樂大事典”(서울: 國民音樂研究會, 1969) p. 484

4) 金수현 “표준음악사전”(서울: 월간음악출판부, 1974) p. 153

5) 윤재영, 정달용(한글학회) “새한글사전”(서울: 정양사 홍자출판사, 1967) p. 1170

6) 한글학회 “큰사전”(서울: 율유문화사, 1958) p. 3291

국어 사전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피리(음악) ① 구멍이 8개 있고, 피리허를 꽂아서 부는 악기의 하나, ②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의 총칭」⁷⁾ 「필물(簫簫) a flute→적(笛)」⁸⁾

피리는 표현에 따라 笛을 말하거나 簫簫을 말하기도 하며, 때로는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키고 있는데, 笛을 中心으로 나타낸 사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피리(악)…취주용(吹奏用) 악기의 하나, 속이 빈 대(竹), 나무, 금속 따위로 만든 여러 개의 구멍이 있고, 숨을 내 불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여닫고 음률(音律)을 조정하는 것 적(笛)」^{9), 10)}

「피리… ① 저(笛)의 한 가지 구멍 여덟이 있고, 피리허를 꽂아 부는 악기, 簫簫. ②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숨을 내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의 총칭」¹¹⁾. 또 피리는 「笛」이고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¹²⁾로, 「피리는 橫笛, fue(笛)」¹³⁾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國樂의 分類에서도 管樂器의 分類法을 「竹部, 木部, 笙部 等の 부는 악기를 復簧, 單簧의 橫笛 縱笛」으로 區分하고 있다.¹⁴⁾ 咸和鎭의 朝鮮音樂通論에는 三國時代의 音樂으로 百濟의 音樂中 악기에서 피리類를 笛之類로 나타내고, 高句麗와 新羅音樂에서는 樂器中에 笛類와 小簫樂과 大簫樂로 나누고 있다.¹⁵⁾ 最新 日韓 大辭典에서도 「ふえ(笛)는 ①호각 호적 ②피리(a pipe)」¹⁶⁾라고 하였고, 日語 辭典의 廣辭林에서도 「ふえ(笛) 中空の 竹, 木, 金屬などの 管に 數個の 穴を あけ 息を 吹き 込んで 鳴らす 樂器, 管樂器」¹⁷⁾라고 우리 나라 피리의 내용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下中邦彦의 音樂事典에서는 「ふえ(笛) ①日本における 管樂器の 總稱, 大小, 形體, 縦吹き, 横吹きを 問はず すべて 氣息で 吹き 鳴らす 樂器, ②洋樂器にも いう, 狹義には フルート, レコータ類, 廣義には 木管樂器の 總稱」¹⁸⁾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리는 笛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신 한국어 사전에서 「저(笛)와 적(笛)으로 나누어 '저'는 가로 불게 된 구멍이 일곱 뚫린 피리의 한 가지이며, '적'은 길이로 불게 된 피리모양의 관악기의 한 가지」¹⁹⁾라고 하였다. 이에 피리는 笛을 나타내는 악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피리를 필물로서 說明한 것이 여러 가지 있으나 이것은 다음 國樂器의 名稱편으로 미룬다. 以上에서 詳考한 바와 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 피리라는 名稱은 國樂器의 管樂器만을 뜻함이거나 국악 관악기 中の 어느 指定된 한 개의 악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外來의 관악기에는 使用할 수 없는 名稱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리의 名稱에 대한 定義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

7) 신한출판사 사전부 “신한 새국어사전”(서울: 신한출판사, 1973) p. 1488

8) 한국어사전 편찬회 “한국어 대사전”(서울: 현문사, 1976) p. 1755

9) 신기현·신용진 “표준국어사전”(서울: 을유문화사, 1958) p. 1563

10) 明文堂辭書部 “명문 국어대사전”(修正5版)(서울: 明文堂, 1969) p. 1852

11) 文世榮 “우리말辭典”(서울: 三文社, 1953) p. 1210

12) “世界文章大百科事典”(서울: 三申堂, 1971) p. 247

13) “六個國語辭典”(서울: 英學出版社, 1975) pp. 72~73

14) 張師勛 “韓國樂器大觀”(文化公報部 文化財 管理局, 1969) p. 4

15) 咸和鎭 “朝鮮音樂通論”(서울: 乙酉文化社, 1947) pp. 21~27

16) 漢辰書館 編輯部 “最新日韓大辭典”(大邱: 漢辰書館, 1973) p. 1370

17) 三省堂編修所 “廣辭林”(第五版)(東京: 三省堂, 1973) p. 1708

18) 下中邦彦 “音樂事典”(東京: 平凡社, 1960) p. 2593

19) 신한출판사 사전부 “上揭書” pp. 1157~1162

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일컬음이며, 그 材料가 참대, 나무, 금속 및 기타 여러 가지로 된 管에 여러 개의 잔 구멍을 내고 불면서 그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여 음조(音調)를 이루는 모든 관악기』라고 定義하게 된다.

B. 國樂器 피리의 名稱과 構造

「피리를 國樂에서는 語源上 篳簫(箏簫)이라 쓰고 피리라고 읽는다」²⁰⁾하여 피리의 根本은 篳簫인 것이므로 篳簫로 說明된 내용과 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리(箏簫)……漢文의 發音은 篳簫이라 읽는 것이 옳지만 일반적으로 簧用 피리로 통용되고 있다……우리 나라에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 等 세 종류가 있는데 향피리는 사관 또는 대피리라고도 하며, 향피리는 당피리의 對稱이고, 대피리는 세피리와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다. 향피리(鄉簫)는 당피리보다는 가늘고 세피리보다는 조금 굵은데, 이것은 오래된 黃竹으로 길이 24.55cm(8寸1分)의 관대 위에 海竹의 겹질을 벗기어 만든 겹혀(複簧·舌)를 꽂아서 부는점은 洋樂器의 오보(Oboe)와 같다. 그 소리가 애처롭고 감상적이며, 무척 세련되어 있고 발성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주로 관현악에 편성되고 또 독주악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당피리(唐簫)는 본래 西域지방에서 발생한 악기로 당나라 때 성행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高麗 肅宗 9년(서기 1114)에 들어온 것이다. ③세피리(細簫)는 향피리보다 조금 가늘 뿐 그 제도는 같은데, 이 악기는 가곡, 가사, 시조 등의 반주 악기로 쓰고 또는 비교적 음향이 약한 저문고·가야금등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세악에 편성된다.²¹⁾

(2) 피리(箏簫)……국악의 목관 악기, 황죽으로 대통을 만들고, 역시 겹혀를 만들어 꽂아서 불……국악에 쓰이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음, ①향피리, 우리 나라 고유의 것. ②당피리, 중국에서 전래 온 것, ③세피리, 향피리의 가는 것, 피리는 옛날부터 아악과 속악에 널리 쓰였으며, 음빛같은 서정적이고 애절하면서도 씩씩한 점도 있다.²²⁾

(3) 篳簫(箏簫)……東아시아에 분포하는 오보(Oboe)屬의 관악기,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약 18cm의 대나무 관에 갈대로 만든 리이드를 삽입한 것이다. 음색은 좁지만 음량은 크고 비교적 자유로운 포르타멘토(portamento)를 연주할 수 있다.²³⁾

(4) 篳簫(箏簫)……피리의 일종이며 事物紀原에 說文曰, 乃羌人所吹屠觜以驚馬, 樂錄曰, 箏管也, 何承天纂文曰, 羌胡樂器, 出於胡中……令狐撥樂要曰, 篳簫出於胡中²⁴⁾

(5) 篳簫(箏簫)……箏簫이라고도 쓴다. 겹혀를 갖는 管樂器……韓國에는 唐簫·鄉簫·細簫의 세 가지가 있다. 李王家 雅樂에서는 이 3種이 쓰이고, 民間에서는 주로 細簫가 쓰인

20) 김수현 “前掲書” p. 153

21) 朴炳愛 “國樂”(서울: 教壇社, 1972) pp. 100~104

22) 國民音樂研究會 “前掲書” p. 484

23) “필리판 世界百科大事典 第19卷”(서울: 瑞文堂, 1975) p. 463

24) “故事成語事典”(서울: 學西社, 1970) p. 1141

다. 唐簫는 高麗 恭讓王 때(1389~92), 中國의 明나라로부터 輸入된 것으로 竹製, 길이 약 24cm, 內經 1cm, 指孔은 옛것은 九孔(前面8 後面 1), 近代에는 8孔(前面7 後面1), 반드시 後孔은 前孔의 第1孔과 第2孔과의 中間에 있어야 한다. 鄉簫와 細簫는 모두 한국 古來의 것으로 三韓時代에 發生했다고 傳해지고 있다. ……管은 黃竹으로 만들고 길이는 약 24cm 內經 鄉簫 約 1cm 細簫 0.8cm 指孔은 8孔(前面7 背面1) 반드시 背孔은 前孔의 第1孔보다 높이 부는 입과 前面 第1孔과의 中間에 있다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²⁵⁾

(6) 당피리(唐簫) 향피리(鄉簫) 세피리(細簫)이 세 개의 관악기는 모두 대로 만든 관(管)대와 혀(舌)로 되었다. 그 중 당피리는 그 관의 길이가 7촌 8푼이어서 약 8촌 1푼의 향피리에 비해 짧으나, 이와 반대로 그 내경이 4푼이어서 3푼 내경의 향피리 보다 굵다. 향피리 보다 짧고 굵은 당피리는 또 불기에도 힘이 더 든다고 한다. 또 당피리는 현재 8개의 指孔을 가져서 향피리와 같고 다만 뒷구멍을 제 1 공으로 하지 않고 제 2 공으로 한 점에서 향피리와 다를 뿐이다.²⁶⁾

(7) 國樂器 가운데서 Oboe와 같이 復簧 즉 겹혀를 가진 악기에는 鄉피리, 細피리, 唐피리, 太平簫의 네 종류가 있다. 향피리는 漢字로 鄉簫이라고 쓰며, 大피리 또는 사관이라고도 한다. 세피리는 향피리보다 조금 가늘 뿐 그 제도는 같다. 당피리가 향피리보다 불기가 힘든데 그것은 管이 가늘어서 김이 통하는 內經이 좁고, 혀(舌)가 작은 까닭으로 입김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細피리의 음역과 按孔法은 향피리와 같다. 唐피리는 樂學軌範 卷7 唐簫條에서 「簫簫一名 悲簫이라 하고 一名 筊管이라고도 하며, 羌胡 龜茲의 樂이다. 대(竹)로 管을 만들어 갈대로 혀(舌)를 만드니, 그 모양은 胡筊에 類하고 九孔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나 이것이 李朝 成宗 때에는 향피리와 같이 八孔으로 개량되었다.²⁷⁾ 이와 같이 필률(簫)이란 말로는 현재 쓰이지 않고 피리로 通稱하고 있으나 國樂器 피리의 種類를 말할 때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로 기록해야 하며 또 불려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국악기 중의 피리들을 말하려 한다면 세 가지 피리 뿐 만 아니라 大笏, 中笏, 唐笛, 篴等の 橫笛과 簫, 簫遠, 洞簫, 短簫의 縱笛과 太平簫 笙簧 등이 모두 피리類의 樂器라 指稱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C. 플라스틱 피리의 名稱과 構造

현재 학교용 敎育 樂器로서 중요시 되고 있는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들어진 피리는 그 起源이 不明하나 꽤 일찍부터 쓰여진 악기로서 보통 레코더(recorder)를 말하는 것이다. 英國에서는 레코더를 다른 말로 English flute라고 부르기도 하며, 獨逸에서는 Blockflöte 또는 Schnabel flöte, 伊太利에서는 flauto dolce, 佛蘭西에서는 flûte à bec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

25) 下中邦彦 “世界百科事典”(東京: 平凡社, 1959) pp. 424~425

26) 李惠求 “韓國國樂器圖說”(서울: 東新文化出版社, 1967) p. 29

27) 張師勛 “前掲書” pp. 36~41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商標에 따라 ‘셀마’ ‘Aulos’ ‘칼울프’ ‘킹벨’ ‘백조’ ‘에밀레’ ‘유니온’ 피리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이樂器의構造는 마우드피스(mouthpiece)에 마개(fipple, Block)를 꽂아서 좁혀진 바람길에 숨을 불어 넣어 소리내는 피리(fipple flute)로서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밝은, 갈대피리와 비슷한 음색을 지니며,²⁸⁾ 用材는 회양목, 黑檀, 紫檀, 단풍나무 등의 木材와 象牙나 大理石 등의 特殊材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플라스틱材를 使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피리를 레코더라 부르게 된 由來를 그로브(Grove) 事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⁹⁾

Recorder is an early flute, also called the English Flute.

The name “recorder” was derived from the verb “to record”, meaning “to sing like a bird”

또 레코더를 여러 가지로 分類하며 여러 나라 말로 서로 다르게 불리우게 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instrument has been known by a number of names in different languages, which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 (1) From the beak-shaped mouthpiece: flûte à bec(France) and Schnabelflöte(Germany).
- (2) From the “fipple” or plug which stops the upper end of the tube to from the “whistle” mouthpiece: “fipple flute”, Blockflöte” (the modern German word for a recorder).
- (3) From the Characteristically sweet tone of the instrument: flute douce (France), flauto dolce (Italy).

Plastic 製品의 發達로 近來에는 多様な 플라스틱 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美國에서는 最近에 改作한 것으로 ‘song flute’ ‘tonette’ ‘flutophone’ ‘Ocarina’ ‘Symphonette’ ‘melody flute’ 등이 널리 使用되고 있다.³⁰⁾

이같은 여러 가지 레코더를 피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內容에 비추어 보기로 한다. 下中邦彦의 世界大百科事典에 의하면

「ふえ(笛)は 英語でも フルート(flute)の ほかに パイプ(pipe)とも 呼ばれるように 一般に 普通は 管樂器であるが……管樂器の 笛は ふつう 横吹きと 縦吹きの 2種に 分けられるが 縦吹きの 樂器は さらに, クラリネットや オーボエや 筆簫などの ように リード(簧)を 使うものと, 레코더나 尺八などの ように 리드가 없는ものと 分けられる」³¹⁾

라고 하여 레코더를 피리(笛)라고 부르는 것을 제시하였고, 最近에 出版된 英韓辭典들을 보아

28) 信達出版社 편 찬위원회 “前掲書” pp.298~299

29) Eric Blom “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5th e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3) p.73

30) Robert W. House, “Instrumental Music for Today’s Schoo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65) p.43

31) 下中邦彦 “前掲書” p.424

도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recorder……여덟구멍짜리 옛날 피리」³²⁾ 이상과 같은 見地에서 볼 때, 現在 우리 나라에서 使用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레코더는 피리로 通稱되어도 무방함을 알게 된다.

D. 우리나라 플라스틱 피리 製品의 分析

初·中學校의 音樂科 敎育課程(문교부령 310호, 1973)에성 피리를 必須樂器로 追加하면서부터 국민 학교와 중학교의 器樂指導에서는 피리指導가 활발하게 되었다. 初期에는 敎師들도 特別 講習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지도교사들의 能力은 크게 向上하였으며, 국민학교에서는 독주 악기로서의 연습은 勿論, 重奏, 合奏등에서 중요한 멜로디 악기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樂器 製造業者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生産하여 市中에는 50餘種이나 되는 피리가 市販되고 있다. 이 製品들은 有名, 無名의 商標로서, 제품들의 性能이 不良하여 合奏하는데 서로 音程이 맞지 않아 和音感이 粗雜하게 되고 重奏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獨奏에서도 音程, 音階가 一定치 않은 것들이 많아, 국민 학교 어린이들의 音感敎育에 크게 害를 끼치는 形편임을 다음 내용에서 볼 수 있다.

〈표-3〉 한 가지 商標의 피리로 合奏할 때의 性能(%)

성능 교사	음 정			음 계		
	전부 맞는다	2/3정도 맞는다	1/3정도 맞는다	전부 맞는다	2/3정도 맞는다	1/3정도 맞는다
국민학교교사	5	62.5	32.5	12.5	65	22.5
중학교 교사	5	65	30	5	80	15

〈표-4〉 여러 가지 商標의 피리로 合奏할 때의 性能(%)

성능 교사	음 정			음 계		
	전부 맞는다	2/3정도 맞는다	1/3정도 맞는다	전부 맞는다	2/3정도 맞는다	1/3정도 맞는다
국민학교교사	2.5	45	52.5	2.5	52.5	45
중학교 교사	5	50	45	5	50	45

한 개의 피리 性能에 대해서는 〈표-1〉(p.2 參照)에서 지적한 대로 국민 학교는 바르고 틀림이 각각 50%밖에 되지 않았으며, 같은 商標 製品인데도 여럿이 合奏할 때 맞는다는 應答은〈표-3〉과 같이 겨우 5%이고 거의 맞지 않는다는 것이 30%나 된다. 여러 가지 商標의 製品들이 섞여 合奏할 때는 〈표-4〉와 같이 더욱 不良하여, 맞는다가 3.5%정도이고, 거의 틀린다가 47%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도, 이것은 音樂의 基礎機能과 音感を 지도하는 음악敎育에서 時急히 是正되어야 할 문제임을 呼訴하게 된다. 현재 市販되는 피리를 보면, 大邱 동신평업사에서 제일 많은 피리를 生産하고 있는데 ‘Superio’ ‘엘토피리’ ‘백조’ ‘소프라노’ ‘칼울프(2단식)’ ‘킹벨

32) Kwang Man, Kauh. "A New English-Korean Dictionary" OMUNGAK Publishing Co., 1964) p.1604

(2단식)' '유니온(1단식)' '킹벨(1단식)' '셀마(1단식)' 등으로 한국 교육 피리 연구원에서 청탁하여 製造한다고 하며 製品의 信用度가 높은 편인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 동아 교재 No.7의 'Apollow' 세로 피리가 있고, 대구 음악사의 'Nikan Superio pipe II', 新進 부산 근제라고 하는 'Aulos(BelCanto)', 등의 表示品도 있으나, 전혀 제조공업사나 出處를 알 수 없는 피리도 많이 있다. 다음과 같은 商標도 판매되고 있다. '新新(五福피리)' '金星' '金鋼' 'Kemseng' '세운' '폐지표' '화랑' '왕관' '천일' '에밀레' '옥피리' '카네기' 'orff' 등 다양한데 이 밖에도 수 많은 피리들이 同一製品에 商標만 다른 것도 있고, 모양 자체도 粗雜한 物品들이 문방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性能이 不良한 악기일수록 저렴한 가격이어서 어린이들이 값이 싼 것을 더 잘 購入하는 관계로 한 學級에 모여진 피리는 여러 가지가 모이고, 合奏하려면 악기 서로의 音程과 音階가 맞지 않아 教師와 어린이가 意慾으로 器樂合奏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것이 現實情이다.

IV. 結論 및 提言

A. 結 論

音樂教育 內容이 歌唱, 器樂, 創作, 鑑賞으로 나뉘어지고 각 領域이 고루 지도되게 됨에 따라 器樂教育의 目標에서 지도내용을 補強하여 初·中學校의 必須樂器로 피리가 追加되었고, 한편 조상들이 남긴 文化遺産을 계승하여 민족 文化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교육과정의 일반목표에 따라 국민 학교에서부터 國樂教育의 強化를 強調하게 되었고, 민요를 비롯한 여러가지 국악곡의 감상, 국악기의 감상과 연주 등의 학습이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에 대두된 문제로서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필수 악기 피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피리라는 樂器名은 관악기의 一般的인 名稱일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국악기만을 말하는 것인가, 또 일선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피리를, 플라스틱 레코더를 말하는 것으로 알거나, 국악기 피리로 알거나 두 가지 모두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다양하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좋을 것인가, 국민 학교의 교과서 내용에서 피리의 학습 내용은 모두 레코더의 학습내용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학습을 위해 購入해 쓰는 피리들의 性能 即 音程이나 音階가 맞지 않고 있어 器樂의 技能지도에 앞서 音感教育에 害가 큰 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본 研究는 피리란 名稱은 국악기나 레코더等 대개의 木管樂器에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임을 確認하였다. 따라서 피리란 지정된 한 악기라기 보다 피리類의 악기에 쓰이는 名稱이라 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피리는 국악기일 수도 있고, 레코더 피리일 수도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보다 分明히 區分하려면 피리라는 말에 이어 묶음표로 (레코더)라던가, (국악기)라고 明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 국악기 피리를 나타낼 때는 피리類에 鄉피리, 細피리, 唐피리가 區別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중의 어느 한 악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勿論 이 같은 表記는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明記하되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인 교과서나 學習指導過程에서는 피리라고만 通用되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結論된다. 市販中인 數十種의 피리들은 너무 粗雜하여 教育에 利보다 害가 더 많이 지적됨으로 生産業者들의 特別한 覺醒을 促求하며, 文教 當局의 行政的인 措施가 速히 이루어져 器樂教育의 正常化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要望하게 되었다.

B. 提 言

음악 교육에서 기악 교육의 重視와 피리가 필수 악기로 追加된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로써 惹起된 문제점들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點을 提言하게 된다.

첫째, 국민 학교 중 학교 음악 교육 과정에서 지도상의 유의점中 8항, 9항의 필수 악기로 제시된 피리에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明記할 必要를 갖는다.

(1) 피리를 레코너만을 가리킬 때 “피리(레코더)”로 할 것.

(2) 피리를 국악기 만을 가르킬 때 “피리(鄉피리, 細피리, 唐피리)”로 또는 이 중의 한 악기로 明記할 것.

(3) 피리를 레코더나 국악기 등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이 막연히 “피리”라고만 기록해도 무방하나 “피리(레코더 및 국악기—향피리·세피리·당피리)로 기록함이 옳다고 본다.

만일 (3)과 같이 필수 악기 피리가 국악기도 가리킨다면, 국민 학교 및 중 학교의 교과서 중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의 전부 또는 그 한 가지의 奏法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市販中의 피리의 精密檢査 制度가 時急히 要請된다. 독주, 중주, 합주를 指導하거나 演奏하려 할 때, 음정 음계가 맞지 않는 악기들로서는 도저히 올바른 演奏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精密檢査 制度로서 規格 合格品에 限하여 市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行政的 措置가 이루어지기를 提言한다.

(1) 모든 피리 메이커들은 문교부가 지정한 精密檢査 合格證을 붙여 市販토록 할 것.

(2) 각급 학교에서 피리를 購入할 때는 學級單位로 同一 商標의 피리를 共同購入할 수 있는 對策을 세워 줄 것.

參 考 文 獻

1. 故事成語事典, 서울:學園社, 1970.
2. 국민학교 교육과정, 서울:교육도서 주식회사, 1973.
3. 금수현, 표준 음악사전, 서울:월간음악 출판부, 1974.
4. 明文堂辭書部, 명문국어대사전(修正 5版) 서울:明文堂, 1969.
5. 文世榮, 우리말辭典, 서울:三文社, 1953.
6. 朴錦愛, 國樂, 서울:敎壇社, 1972
7. 世界文章大百科事典, 서울:三中堂, 1971.
8. 신기철·신용철, 표준 국어사전, 서울:을유문화사, 1958
9. 信進出版社編纂會, 音樂大事典, 서울:信進出版社, 1972
10. 신한출판사 사서부, 신한새국어사전, 서울:신한출판사, 1973
11. 六個國語辭典, 서울:英學出版社, 1975
12. 윤재용·정달용, 새한글사전, 서울:정양사 홍자출판사, 1973
13. 李康濂, 音樂大事典, 서울:國民音樂研究會, 1969
14. 李惠求, 韓國國樂器圖說, 서울:東新出版社, 1967
15. 張師助, 韓國樂器大觀,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
16. 킨러판 世界百科大事典 第19卷, 서울:瑞文堂, 1975
17. 한국어 사전 편찬회, 한국어대사전, 서울:현문사, 1976
18. 한글학회, 큰사전6, 서울:을유문화사, 1958
19. 漢辰書館編輯部, 最新日韓大辭典, 大邱:漢辰書館, 1973
20. 咸和鎭, 朝鮮音樂通論, 서울:乙酉文化社, 1947
21. 三省堂偏修所, 廣辭林(第五版), 東京:三省堂, 1973
22. 下中那彦, 音樂事典, 東京:平凡社, 1960
23. 下中那彦, 世界百科事典(第四刷), 東京:平凡社, 1959
24. Kwang Man, Kauh, "A New English-Korean Dictionary", OMungak Publishing Co., 1964
25. Eric Blom, "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5th e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3
26. Robert W. House, "Instrumental Music for Today's Schoo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65.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and Recorder.

Associate Professor. Chang-Hwan Jang

The calling of Piri has been publicly criticized by the music circle following the determination by educational authorities of Piri as a musical instrument required by the curriculum of primary and middle schools after music curriculum was reorganized (1973). The criticism has been focused on whether Piri is Korean classical musical instrument or recorder.

The content of Piri analyzed in primary school text books was all about recorder. Therefore the study and research have been made with various relevant books and publications as to if Piri as the name of musical instrument can be used for recorder which is not Korean classical musical instrument. The study and research of function of recorder being used as musical training aid have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

1. Piri as Korean classical musical instrument can be broken down into Hyang-Piri, Sae-Piri, and Tang-Piri. Further, recorder can be called Piri just as wood instrument is generally called Piri.
2. Questionnaire on the functions of Piri (recorder) being used at present time have been conducted against music teachers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along with collection of Piri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rough questionnaire and sample collection reveals that the accuracy of musical scale and interval of Piri is about 50 percent.
3. Accurate manufacturing by production companies is strongly urged and administrative correction by education authorities concerned is further recommended.